

생태건강치유 도시 도약 총력

진안군, 생태건강치유도시 실현 위한 전략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4일 군청 강당에서 실과소, 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춘성 군수 주재로 군정 미래전략과제인 '생태건강치유 도시' 실현을 위해 발굴한 부서별 성과 지표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민선 8기 하반기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중장기적인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앞서 군은 2024년 진안군 자체평가 내 부서별 빌률을 통해 '생태건강치유



도시' 성과지표로△쾌적한 생태환경 도시, △미래진안 건강도시, △자연치유 녹색도시, △생활 속 행복도시라는 4가지 추진지표와 세부 실천 과제로 41건을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현 추

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부서별로 보고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등 미래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의 미래가치와 비전을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이 가진 비교우위의 생태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특화된 빌전전략으로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실현을 위해 군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군민의 문화 향유의 장 '첫걸음'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진안군은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진안읍 군상리 학천지구(군상리 48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지혜의 숲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공연주차장, 복합 문화광장 등 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

회의에는 군 관계자 및 도서관 견립추진위원회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이 참석해 설계의 방향성과 추진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실내 공간 계획 등 설계 개념과 방향에 대한 보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진안군은 군 문화 예술의 메카가 될 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이번 착수 보고회 이후에는 군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착수보고회는 우리 진안의 문화예술에 초석이 될 도서관 견립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수십 년 간 진안의 교육과 문화 융성을 위한 초석이 될 건축물로 군민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용역사 및 관련 부서, 전문가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성형외과 진료 재개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성형외과 외래 진료를 재개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의료계 파업으로 상급종합병원 파견 근무와 응급실 지원에 나섰던 성형외과 전문의(공중보건의사)가 지원 근무(2024. 3. 11. ~ 10. 13.)를 마치고 4일부터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정상 진료 중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성형외과에서는 상처치료와 관리, 일반 진료를 비롯해 미용 관련 시술(오후 예약제, 진료비) 상태에 따라 비급여 수가 적용)도 진행한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무주군보건의료원은 레이저기와 전기쏘카기 등 해당과 진료 장비와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을 점검하고 미용(비급여 진료 항목) 수가 책정과 지역보건의료시스템 비급여 수가 코드 신규 설정을 마친 상태다.



팀 최정태 팀장은 "2021년 4월에 처음 성형외과 진료가 시작되고 나서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공백기 동안 이용 문의도 많았지만"며 "주민들이 앞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 이장회의와 누리집 등을 통해 무주군보건의료원 성형외과의 미래 진료 재개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무주 1박 2일 캠핑 여행

무주군, 7일까지 참가자 모집… 11월 8~9일 반디랜드 청소년야영장 캠핑·곤충박물관 관람 등 진행

무주군이 오는 8일과 9일 '1박 2일 캠핑 여행'을 진행한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무주'를 주제로 한 이번 여행은 자연특별시 무주의 맛과 맛, 그리고 여행의 즐거움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반디랜드 청소년 야영장에서의 캠핑과 △반디랜드 아외공연(미술·거품·키디리), 태권도 공연, 스태그어드벤처 체험, △태권증상숲길 걷기,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관람 등을 즐길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무주 1박 2일 캠핑 여행 참기를 원하는 사람(텐트 및 캠핑장비 지원 필수)은 행사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서 접수를 하면 된다.(문의 063-227-4450) 참가자들에게는 반디랜드 아영장 할인 및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오혜동 과장은 "자연특별시 무주의 깊어진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자연 한 헤택을 누리며 아름다운 무주의 자연과 즐길 거리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 보시라"고 전했다.

한편 반디랜드 청소년야영장은 4개

의 아영지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 각 아영지에는 화장실과 개수대가 설치돼 있어 편하게 아영을 즐길 수 있다. 또 제1아영지 아영에서는 남녀 각각 9명씩 들어갈 수 있는 사우실(온수 이용 가능) 이용도 가능하다.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에서는 반딧불 이를 비롯한 네발마미 하늘소 등 희귀 곤충과 표본, 열대식물, 동·식물 화석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수달도 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제2기 농군사관학교 다축·밀실 사과반' 순항 중

장수군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제2기 농군사관학교 다축·밀실 사과반'이 매 교육마다 50명 이상의 교육생이 참석하며 뜨거운 열기 속에 순항 중이라고 전했다. 사과반은 이달 까지 이론 및 현장견학 10회 과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25일에는 60여 명의 교육생이 포항시 일원의 선도농가 대신농원에 방문해 현장견학을 추진했으며 생산성과 과원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축과원 재배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며 질의응답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큰 호응을 얻었다.

다축수형은 기존 하나의 중심축으로 방추형의 나무모양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한 나무에서 여러 개의 축을 키우는 나무형태로 세력을 여러 축으로 분산시켜 키를 낮추고 형태를 단순화해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 생산성 및 전정·수확 등 직업효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형 수형이다.

현장견학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사과 다축·밀실 재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하다가 현장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방법과 재배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사과 재배체계가 기존 세정방추형에서 밀식·다축 재배 등 미래형 수형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며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축·밀식 재배 교육을 주기적으로 편성해 다축사과 재배기술이 관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The image shows several white recreational vehicles (RVs) parked in a row at a campsite.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dense green trees and foliage, suggesting a natural, outdoor setting.

지역 소식통

진안군, 2024년도 공공 비축미 2615톤 매입

진안군은 4일부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2,615톤(6만 5,389포/40kg)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 대상 품종은 신동진, 해담, 참동진으로 매입가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일정은 △진안읍(4~5일), △용담면, 악천면(13일), △동향면(18일), △상전면, 정천면(20일), △백운면(5, 8, 15, 19일), △성수면(7, 14, 21일), △미령면(6, 12일), △부귀면(15, 18일), △주천면(14일), 각 읍·면별 지정 장소서 매입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지정된 품종 외의 벼를 출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는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무주소방서, 2024~2025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무주소방서는 겨울철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4~20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집중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겨울철은 기온이 저하와 함께 난방 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이며, 특히 건조한 날씨가 더해지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한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에서는 총 2,757건의 화재가 겨울철에 발생하여 106명의 인명 피해와 289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무주군은 같은 기간 동안 6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이번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에서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저감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